

일장기 말소 사진을 보도하여 민족의식을 일깨운 언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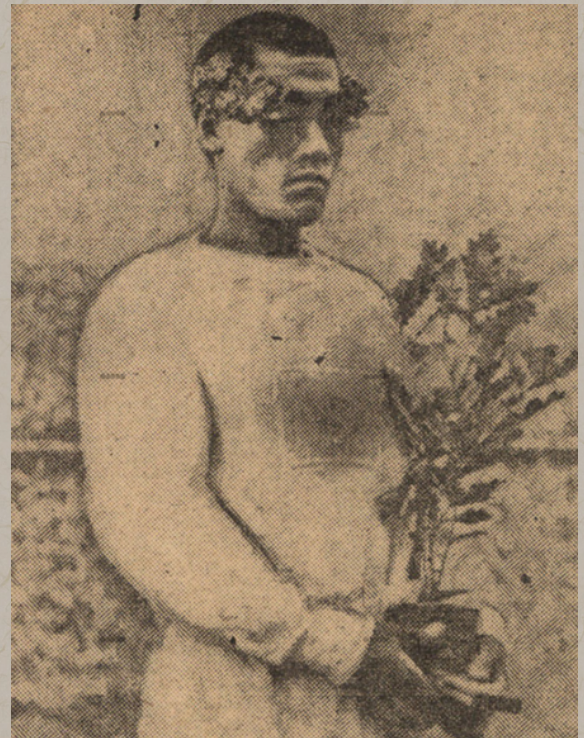
손기정 선수의 마라톤 우승

**1936년 8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11회 올림픽에 한국인 손기정, 남승룡의 출전
올림픽의 꽃 마라톤에서 각각 금메달과 동메달 획득 쾌거**

1936년 8월 1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제11회 올림픽이 개최되었다. 한국인도 7명이 선발되었으나 나라 잃은 설움으로 일본 선수단에 소속되어 경기에 출전하였다. 그 가운데 올림픽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마라톤에 출전한 손기정과 남승룡이 주목을 받았다.

8월 9일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 손기정은 2시간 29분 19초 2의 기록으로 우승하였고, 남승룡도 3위로 동메달을 획득하였다. 두 선수의 쾌거를 동아일보와 조선중앙일보가 앞장서서 연일 기사로 내보냈다.

동아일보는 「조선의 아들 손기정, 세계의 영웅이 되기까지」(1)~(3) (1936.8.11~13), 「세계 제패의 개선가」(1936.8.11), 「어서 오라 너 조선의 두 아들들이여」(1936.8.12), 「그들은 세계에 알렸다. 영예의 남승룡군」(1)~(2) (1936.8.14, 8.18), 「젊은 조선의 세계 제패, 마라톤 손·남 양군에 쏠리는 감격」(1936.8.25) 등을 게재했다.



**일장기가 말소된 손기정 사진
(동아일보 1936. 8. 25)**

동아일보는 손기정의 우승을 기념하는 체육관 건립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스포츠조선 세계 제패가(哥)' 공모전을 열었다. 8월 26일부터는 부민관에서 올림픽 활동사진 상영회를 기획하기도 하였다. 『동아일보』는 더 나아가서 손기정의 우승을 기념하는 체육관 건립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스포츠조선 세계 제패가(哥)' 공모전을 열기도 하였다. 8월 26일부터는 부민관에서 올림픽 활동사진 상영회를 기획하기도 하였다.

『조선중앙일보』도 「십여 만 명 관중 환호리 손군 일착의 극적장면」(1936.8.11), 「금번 올림픽에 일등한 손기정군 미담」(1936.8.12), 「베를린-조선, 마라톤왕 우리들의 손군이 세계의 영관을 얻기까지」(1936.8.13.) 등의 특집 기사와 심훈의 축시 「오오, 조선의 남아여」(1936.8.11)를 게재했다.

이처럼 두 언론사는 손기정의 마라톤 우승을 호외와 특집 기사, 논설 등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였다. 연일 계속되는 보도에 암울하고 냉혹했던 식민지 시기를 울분 속에 지내온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조선중앙일보와

동아일보의

일장기 말소

손기정의 마라톤 우승은 틀림없는 한국민의 우승이었다. 그러나 손기정은 나라 잃은 식민지 현실 속에서 일장기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시상대에 올랐다. 3위에 입상한 남승룡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1936년 8월 13일자 「조선중앙일보」가 게재한 시상식 사진에는 일장기가 보이지 않았다. 손기정의 양정고등보통학교 마라톤 선배였던 기자 유해봉이 사진부원들과 협의하여 일장기를 지운 것이었다. 선수의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사진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제의 검열을 통과할 수 있었다. 같은 날 동아일보도 조선중앙일보와 거의 동일한 사진을 실었다. 손기정의 유니폼의 일장기 표식이 직사각형 테두리는 확인되지만 일장기 표식은 흐릿하게 되어 있었다. 이 역시도 사진 상태가 좋지 않아 검열을 통과했다.



일장기가 말소된 시상식 모습
(조선중앙일보, 1936. 8. 13)

일장기가 지워진 사진은 8월 25일자 동아일보에 다시 게재되었다. 이번에는 일장기 부분이 완전히 삭제되었다. 동아일보의 일장기 말소는 운동부 기자 이길용이 『오사카 아사히신문』 남선판과 서북판에 실린 사진을 화가 이상범에게 일장기를 흐리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상범이 사진에 흰색 물감을 써서 일장기를 흐리게 했다. 이 사진을 사회부 기자 장용서가 사진과장 신낙균과 사진부 기자 서영호에게 보다 확실하게 일장기를 지우자고 제안했고, 신낙균의 지시를 받은 서영호가 청산가리를 사용해서 완전히 일장기 부분을 지우고 인쇄를 넘겼다.

일제는 일장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동아일보의 발매와 배포를 금지하였다. 그리고 이길용, 이상범 등을 체포하였다. 동아일보 사장 송진우와 부사장 장덕수, 주필 김준연 등 경영진도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 일제는 27일 조사결과를 발표하였고, 동아일보에 대한 무기정간 조치를 취했다. 동아일보는 이미 인쇄된 8월 28일자를 마지막으로 8월 29일부터 무기 정간에 들어갔다. 정간은 무려 10개월이나 계속되었고 1937년 6월 2일이 되어서야 해제되었다. 무기정간 조치와 함께 일제는 사건 관계자의 처벌과 함께 임원진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언론 탄압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주필 김준연과, 편집국장 설의식이 곧바로 사임하였고 일장기 말소 사건의 직접적인 관련자인 이길용 등 6명은 9월 25일자로 사임하였다. 동아일보 사장 송진우도 두달 후인 11월에 가서 사임하였다.

『조선중앙일보』에 대한 수사도 9월 1일부터 시작되어, 4명이 연행되었다. 이에 『조선중앙일보』는 9월 4일자 석간을 마지막으로 자진 휴간하였다. 일제는 조선중앙일보에 대해서도 사장 여운형과 편집국장 윤희중을 불러 책임을 물은 뒤 사장 이하 간부진의 사직을 강요하였다. 결국 여운형을 비롯한 간부진은 휴간에 이르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간부진과 관련 기자의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후 11월 초순 경무국으로부터 여운형에게 책임질 것을 강요받자 취체역 회의에서 사장 여운형과 간부진의 사직을 결의하였다. 결국 조선중앙일보는 속간하지 못하고 1937년 11월 5일자로 폐간되었다.



동아일보 사장을
지낸 송진우 생가
(전남 담양) ▶

사적지 상세보기



◀ 옛 동아일보
사옥 (서울 종로)

사적지 상세보기



조선중앙일보 사장
이었던 여운형 생가
(경기 양평) ▶

사적지 상세보기



◀ 옛 조선중앙일보
사옥 (서울 종로)

사적지 상세보기

현재 서울에는 일장기 말소사건을 주도한 동아일보와 조선중앙일보의 사옥이 남아있다. 동아일보는 1920년 4월 경성부 화동 중앙학교 구 교사에서 창간하였다. 이후 1926년 12월 경성부 광화문통 139번지(현 종로구 청계천로 1)로 신축 이전하였다. 신축 사옥은 3층 건물이었으나 지금은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증축되었다. 2001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조선중앙일보』는 1933년 3월 7일~1936년 9월 4일 발행된 신문이다. 『조선중앙일보』는 중외일보(1926.11.15~1931.6.19)가 제호를 중앙일보(1931.11.27~1933.3.6)로 변경하였던 것을 1933년 2월 여운형이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제호를 다시 바꾼 것이다. 조선중앙일보 사옥은 현재 서울 종로구 견지동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 건물은 조선일보의 사옥이었는데 1933년 4월 연건동으로 이전하자 그해 6월부터 조선중앙일보가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 2013년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되었다.